人터뷰

김 필 수
한국전기차협회장

"1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전기차는 현재 친환경차 대표주자이자 미래 세계 자동차 시장의 주류가 될 것입니다."

"전기차 세계 자동차 시장의 주류"

정책적으로 수소차에 올인보다 적절히 배분해줘야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대림대 교수)은 앞으로의 미래차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기차는 자율주행, 공유경제 등 미래 먹거리와도 연계돼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김 협회장은 "전기차는 이미 곳곳에 전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다 에너지 효율도 좋고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완전 무공해 자동차"라며 "부품수도 내연기관차의 40% 수준에 불과하고 앞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까지 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이 일관성 있게 나가줘야 하는데 최근 정부가 갑자기 수소차에 올인하는 듯 보여 안타깝다.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에도 적절히 배분해줘야 한다"며 "다만 나중에 전기차와 수소차는 지금의 가솔린·디젤처럼 공존할 것"이라고 제언했다.김 협회장은 수소차에 대해 "정확한 명칭은 '수소연료전지차"라며 현재는 석유 화합물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나 천연가스를 개질해 사용하는 미완성 작품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무공해라면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해 방식으로 해야 납득이 갈텐데 지금은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며 "수소차는 백지상태나 다름없다. 30억원씩이나 들여 수소충전소를 세운다는데 반면 전기 콘센트는 지금도 어디에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아직도 전기차 충전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점차 해소되리라 본다"며 "공공용 급속 충전기는 더 늘려야 한다.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 쓰지 않아도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많이 있어야 보급 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용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은 없어져야 하는게 맞다"며 "현재 아파트 주차장 위주로 충전기가 설치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27% 정도가 거주하는 빌라, 연립주택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W당 급속 충전 가격도 250원 이상으로 올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충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 모델이 나올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전기차도 스마트폰과 같은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집에 가면 스마트폰을 바로 충전하듯이 전기차 충전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는 "국민들은 심야 시간 완속으로 하는 홈충전에 치중해줘야 한다"며 "완속 충전을 하면서 잉여 전력도 쓰고, 비용도 저렴하게 이용하고, 배터리 수명도 늘리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홍보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근우 기자 lgw909@

LG 디오스 전기레인지…화력·안전성 업계 '짱'

LG전자, 조리속도 2.3배 빨라
다이아몬드 수준 경도 자랑

LG전자는 최근 디오스 전기레인지의 이번 달 판매가 지난해보다 3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도 5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가정에서 전기레인지가 가스레인지를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LG디오스 인덕션 전기레인지의 경우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해 용기로부터 열을 차단하고 ▲최적화된 코일 설계로 화력을 집중시키면서 ▲핵심부품을 보호하는 설계로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3중 고화력 부스터' 기술을 적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화력과 뛰어난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구현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단일 화구 기준으로 최대 3키로와트(kW)의 고화력을 낼 수 있으며, 동급 가스레인지보다 조리속도가 최대 2.3배 빠르다.

또, ▲어린 아이가 만져도 작동이 안되는 '잠금 버튼' ▲조리시간을 설정하는 '타이머' ▲버튼 하나로 모든 화구의 출력을 최저로 낮추는 '일시 낮춤' ▲뜨거워진 상판이 식을 때까지 표시해주는 '잔열 표시' ▲코일 과열을 방지하는 '출력 제어' 등 총 14가지 안전기능을 탑재해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다이아몬드 수준의 경도를 자랑하는 독일 특수유리전문업체 쇼트사의 '미라듀어(Miradur②) 글라스'를 적용한 최고급 인덕션 전기레인지를 출시하기도 했다.

양진영 기자 camp@

LG 디오스 전기레인지가 과거 대표적인 조리기기였던 가스레인지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사진은 설을 맞아 LG 디오스 전기레인지로 명절음식을 장만하는 모습.

사용기/소니 WH-1000XM3

진화된 아이유 헤드폰…자체 개발한 QN1 탑재

노이즈 캔슬링 처리속도 4배↑
전용 앱으로 다양한 기능 조절 가능

아이유가 썼던 실버톤의 소니 WH-1000XM3.

소니의 WH-1000XM3는 업계에선 흔히 '마크3'라고 부르지만 더 친숙한 단어는 '아이유 헤드폰'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도 'b' 헤드폰을 내 몸같이 달고 다니던 터라, '헤드폰 쯤이야'라는 마음이었고 주변 소음을 상쇄하는 노이즈 캔슬링도 '당연한' 기술로 여겼다. 그러나 마크3는 첫 만남부터 내 오만을 비웃었다.

▲타원형 헤어밴드…요다현상 이젠 '안녕'= 마크3의 이어컵은 귀 모양과 닮은 타원형이며 소리가 나오는 공명판까지의 깊이도 전작보다 깊어졌다. 그래서인지 동그란 모양의 헤드폰보다 착용했을 때 이어컵이 귀를 누르는 면적이 적어 매우 편안하다.

헤드밴드는 일반적인 헤드폰처럼 원이 아닌 타원형 형태로 제작됐으며 특히 헤드밴드 가운데에는 눈에 띌 정도로 두꺼운 쿠션을 장착했다. 스타워즈의 그랜드마스터, 요다가 헤드폰을 쓰면 윗부분이 떠서 머리가 크게 보인다는 요다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케이스는 하드케이스로 오버이어 타입인 만큼 성인 남성 손바닥보다 크다. 다만 군대 수통처럼 타원형의 납작한 모양으로 제작돼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부담이 없었고, 파스텔 톤의 페브릭 재질로 디자인이 뛰어났다. 단점이라면 수납을 위해 이어폰을 90도 돌려야 하는 까닭에 목에 걸었을 때 각이 살지 않는다는 부분 정도다.

▲QN1칩 탑재로 노이즈 캔슬링 업그레이드…소음을 지우다= 감히 말하기를, 마크3의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아직 노이즈 캔슬링을 제대로 만난 적 없는 것이라 단언한다. 그만큼 마크3의 노이즈 캔슬링은 독보적인 수준이다. 기존 쓰던 'b' 사의 최신 헤드폰도 물론 뛰어났다. 그러나 마크3는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작동하면 거짓말 좀 더 보태서 '안들린다'.

처음에는 감탄이 나왔다. 이정도로 착용감이 좋은데, 노이즈 캔슬링까지 완벽에 가깝다니. 가장 작은 볼륨으로 노래라도 틀면 정말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다.

전작 마크2도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뛰어났는데 여기다 자체개발한 고음질 노이즈 캔슬링 프로세서 'QN1'을 탑재하며 처리능력이 약 4배 향상시킨 덕분이다. 그렇게 3일 정도 지났을 무렵. 헤드폰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주변에서 사람과 자동차는 움직이는데, 나한테만 무성영화다. 노이즈캔슬링을 넘어 청각을 잃은 듯한 느낌마저 든다. 그만큼 고요하고 거룩하다.

▲숨은 기능 곳곳에…나보다 똑똑한 헤드폰= 아이언맨의 갑옷과 같은 '마크'시리즈답게 마크3는 기능이 많다. 전용 앱을 통해 이퀄라이저를 비롯해 콘서트장, 야외 등 손쉽게 조절 가능하며, 소리가 나오는 방향을 전후좌우로 설정할 수 있다. 기기가 자동 종료되기까지 대기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배터리 잔량 또한 확인 가능하다.

헤드폰 자체만으로도 여러 기능등을 사용할 수 있다. 왼쪽 이어폰 하단의 버튼으로 노이즈 캔슬링이나 '앰비언트(Ambient) 사운드'로 전환할 수 있다. 엠비언트 사운드란 말 그대로 주위 소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음악이 들리는 가운데 주변의 소리를 확대해서 듣게 해주는 기능이다.

오른쪽 이어폰에는 터치패드가 내장돼 음량과 재생 등을 조절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패드를 손으로 막으면 주변 소리가 전개되는 '퀵 어텐션' 기능이 있어, 버스정류장 안내 음성을 듣겠다며 헤드폰 한쪽 귀만 제치는 멋 떨어지는 짓을 하지 않아도 됐다.

▲2월까지 구입하면 사은품도= 결론적으로 마크3는 헤드폰에 충실하게 맞춰 성능을 극대화 한 제품이다. 착용감과 함께 노이즈캔슬링 기능을 강화했고 사용자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했다. 반면 음성통화 용도로는 거의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 49만9000원의 비싼 가격은 어쩔 수 없는 흠으로 남는다. 다만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서 정품등록 하면 헤드폰 스탠드, 64GB 메모리 카드, 진공 보온병과 난방텐트 중 1개를 제공하니 이를 핑계대고 질러보는 건 어떨까?

양진영 기자